

# ☆ 서정문학 .....

서정문학이 어떤 뜻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안다면 ...

늘 우리를 괴롭혔던 고전시가 공부와 현대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해결된다.....

모든 시에는 반드시 시적화자와 대상이 존재한다.

그래서 시적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을 찾고 화자는 그것에 대해 자기의 느낌을 적은 글..... 그래서 시 공부는 외울 필요가 없는 것이고 ... 그렇게 외우면서 공부하는 것이 제일 불쌍한 것이지... 오늘도 공부 방법을 바꾸지 않았지 ?

아 누구 꺼 프리패스 듣고 누구 커리 타고 .....

이 고민을 혹시 일주일, 이주일 하지 않았니 ? 혹시 그 이상 ?

진짜 힘들면 연락해 !! 너의 멘토가 되어줄게 !!

많이 못 도와줘도 널 이용하지는 않아...!!

23년차 재수 종합반 강사의 힘과

대치동 7년차 국어논술 학원장을 믿어봐 !!

대치 이름 국어논술 전문학원

그곳에 김현중 원장님의 강의를 있습니다.

☎ 02) 2051 - 2727 (카톡 아이디 : komusso) 010-6236-0467

김현중 원장님은 해도 해도 안되는 수능 국어 3-5등급 학생들의 수술을 주로 전담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 김현중 T입니다.

요즘 오르비에 많은 분들이 국어공부 칼럼도 올려주시고 본인들의 스킬도 많이 올려주시는데 이 낯은 강사가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수능 시작 이전부터 강의해 온 연륜과 경험으로 혹시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2017학년도 대비를 위한 또 한편의 칼럼을 올려볼까 합니다.

이전 오르비 인강이나 칼럼들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쪽지나 메일을 통해 꾸준히 알려 오시는 분들이 있어 나름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은 시문학 칼럼을 올리려 합니다. 생판 처음 보는 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접근하며 주어진 시간 내에 안전하게 풀어낼 수 있을지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고민하려 합니다.

저는 국어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학력고사 마지막 년도 강의(1992년)와 수능 23년을 거친 강의 경험자로서 그래서 누구보다도 정통으로 접근하고 설명하겠습니다. 또 23년간 재수 종합반에서 강의한 경험으로 고3 예비나 재수생 또는 N수생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읽어보시고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장강의를 최대한 옮겨보려고 노력하지만

아직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선 제 칼럼을 읽기 전에 이전 칼럼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전 칼럼들은 하단에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오늘은 난생 처음 보는 시를 하나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기출 B형의 시라고 합니다.

오늘 이 칼럼을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기에 간단하게 몇 가지를 점검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시문학은 현대시이든 고전시가이든 간에 국어교육학에서는 모두 상위개념이 서정문학입니다. 서정문학이라는 것은 [서정 = 정서를 서술한 글 = 시적화자가 대상에 대한 느낌을 적은 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수능을 출제하시는 교수님들도 이 원칙으로 출제하시는 것이고 또 이 원칙에서 어긋난다면 그것은 국가적 인재를 뽑는 수능시험, 즉 국가 고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출제되는 것입니다.**

국어공부는 암기가 아닙니다. 이해를 하고 적용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인 개념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문학을 공부하기에 앞서 가장 기본인 대상과 정서 그리고 시적화자의 태도 등....

따라서 이 원칙만 잘 익히고 여러분들이 적용해 준다면 어떤 서정문학(현대시, 고전시가, 가끔 수필도 포함)이라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

라면 당연히 여러분은 1등급 고지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박남수 [아침 이미지 1] 과 김기택 [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  
이란 시입니다. 우리는 쌍판 처음 보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배경지식으로 풀려는 나쁜 습관과 버릇을 꺼내지 마십시오.**

**제발 시는 애매하고 어려운 것이니까 감으로 푸는 것이다라는 거짓말  
좀 믿지 마십시오. 192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시문학의 경향...이런  
거 가르치는 선생님은 전공자 아닙니다. 만약 전공자라면 그 사람은 수  
능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시인은 누구던가 ? 어찌고 저찌고....~~~~~**

**수업 때 배웠던 시인인가 ? 자유시, 서정시, 반성적, 의지적, 군부독재  
에 대항한 신 지식인의 고뇌~~~~**

**이 시의 시대적 배경은? 상징적 의미는?**

**등등...**

**이 모든 것이 모두 바보짓입니다.**

**( 바보짓은 더 많지만 여기서 생략 )**

앞에 칼럼에서 했듯이 여러분은 크게 외치고 들어갑니다.

시를 만나면 무엇을 찾는다.... ?

네 선생님 !! 시적화자가 시 속에서 현재 바라보는 대상을 찾습니다.

그런 다음 무엇을 찾는다 .?

네 선생님 !! 그 대상에 대한 시적화자의 느낌과 태도를 찾습니다.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항상 수업을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끝냅니다. 대부분 4-5등급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1등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2등급도 가끔 몇몇 있습니다.

자 여기 2015년도 B형 기출시입니다. 수업버전으로 시작합니다.

(가)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 애들아, 제목이 뭐니 ?

**==> 네, 아침 이미지입니다.**

= 그래 ? 그러면 거의 대상은 정해진 거 같은데...!!

= 하여튼 애들아 시적화자가 2행까지 바라보는 대상이 뭐니 ?

**==> 지금 어둠을 보고 있습니다.**

= 오케이...좋다. 그 어둠이 사람처럼 행동하네? 그렇지 ?

**==> 네, 선생님... 의인화입니다 !! 무지 중요한 것이죠 ?**

= 아니...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것보다 우선, 어둠에 대해 느끼는 바

가 무엇이니 ?

**==> 그것이 ..... 그러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

= ‘없는 것 같은데요’가 아니라 정말로 없단다....그러니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 얼른 지나가자.....

= 서정문학에서는 반드시 대상에 대한 정서가 제일 중요하단다...느낌으로 시를 읽는게 아니란다... 절대로 느낌으로 푸는 것이 아니란다...국어는 감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가짜란다.... 알았지 ?!!!!!!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物象)을 돌려주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이어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金)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 3행부터 10행까지 보니까 애들아....대상이 뭐니 ?

**==> 네 선생님 ....그러니까 ....그러니까....아직 어둠인 것 같습니다.**

**==> 아닙니다. 대상은 아침이면~~, 이렇게 말했으니까 ....아침입니다.**

= 그래 !! 두 사람 모두 맞다... 어둠도 대상이고 아침도 대상이다.

= 왜냐하면 어둠을 대상으로 보자꾸나.... 어둠은 아침이 되니 모든 것을 돌려주고 스스로 굴복하는 모습이란다. 아침에 굴복하는 어둠을 보니 불쌍하기도 하다. 반면 아침을 대상으로 잡으면 아침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어둠을 굴복시켰으니 위대해 보이기도 하다.

정서가 노출되지 않았지만 당연히 그 정서는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어둠을 굴복시킨 아침 = (와 위대하다)..) 즉 아침의 위대함 .. 반대는 어둠의 불쌍함..

= 또 온갖 물상들은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고 했는데 시에서 감정 표현은 무조건 시적화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적화자의 느낌을 대신 표현한 감정이입이란다. 즉 아침이 되어서 무거운 어깨를 털고 노동의 시간을 즐긴다는 것은 결국 시적화자의 정서 = 느낌을 대신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왜냐하면 정서는 곧 태도에서도 나타나니까 .... (앞 칼럼에서 이미 설명)

= 즐거운 지상의 잔치 ?...이것도 결국 잔치라는 단어를 봤을 때 시적화자는 아침이라는 대상에 대해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지 ?... 노란색도 아니고 시적화자는 많은 고민 끝에 자기 느낌과 정서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인 금(金)을 선택했단다... 대상이 좋으니까 이왕 쓰는 단어라면 좋은 거 쓰는 거는 당연지사 아닌가 ? 너희들 좋아하는 남자, 여자 친구 표현하려면 설마 거지로 표현하겠니 ? 당연히 싫다면 거지같다고 하겠지...!! 거기다가 태양의 즐거운 울림이라고 또 감정이입을 통해 자기의 정서와 느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단다.

==> 아, 선생님....그러니까... 어둠도 가능하지만 아침이 와서 시적화자가 느끼는 감정이 드러나고 비록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지

만 간접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대상은 아침이고 정서는 즐거움,  
예찬, 활기참...하여튼 최고라는 거죠 ?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  
=> 어둠은 불쌍한 정서이기 때문이고 또 제목과도 맞지 않고...그래서  
아침 맞죠?

= 오케이...ㅎ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을 한다.

- 박남수, 「아침 이미지 1」 -

= 마지막도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그렇지 ?

==> 네 선생님 !! 결국 즐겁고 예찬하는 아침이 오니까 세상은 새롭게  
문을 다시 열고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의미라고 보입니다.

= 오케이.... 이렇게 시는 항상 대상에 대한 정서를 나타내게 되어 있  
단다...그것이 가끔 숨을 때도 있고 직접 나타날 때도 있지만 조금만  
연습하면 쉽게 출제자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단다...

= 시는 정확한 것이고 그래야만 수능에서도 당연히 출제되는 것이지...  
흔히들 문학은 애매모호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절대로 출제 못하  
다.... 출제되는 이유가 정확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제대로  
접근하면 된단다....!!!

= 자 이제 (나)시로 넘어가자 !!

(나)	
[A]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별빛이 묻어 더 낭랑하다

1-5행

= 자 여러분 !! ... 시를 만나면 무엇을 찾는다 ?

**=> 넵... 대상을 찾습니다.**

= 대상이 1-5행까지 뭐라고 생각하니 ?

**=> 음.... 벌레 소리입니다. 거기다가 별빛 ?....?**

= 잘했다...대상은 벌레소리다. 별빛은 벌레 소리를 더 낭랑하게 들리게 해준다고 하니까...별거 없다...

= 3행까지는 아무 정서가 없다. 그러다가 4행 가서 벌레 소리가 환하게 들리고 5행에서는 낭랑하게 들린다고 한다....이것은 풀벌레 소리가 싫은 거냐 ? 좋은 거냐 ?

**=> 네... 이것은 당연히 낭랑하고 환한 거니까 좋은 것이죠 !!....맞죠 ?**

= 맞다... 벌레 소리(청각)를 아주 환한 빛으로 표현했다...(청각의 시각화= 이런 것은 시를 읽을 때 몰라도 됨)

= 그만큼 기분을 대신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기분 나쁘면 낭랑하게 아니라 잘 안들린다... 오케이 ?

[B]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6-8행
[C]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9-12행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13-14행

= 애들아... 1-5행은 특별한 것은 없었다... 일단 대상은 풀벌레 소리다... 거기까지...

= 6-8행을 보면 대상은 뭐니 ?

==> 특별한 것... 없는 것 같아요... 시적화자의 정서보다는 다양한 소리를 듣고 있는 시적화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 아주 좋다...바로 그거다... 정서가 특별히 드러나는 부분이 없다... 완전 오케이..!!

==> 선생님 !! 그런데 9-12행도 소리의 통로를 생각하기만 하는데 12행에서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선생님께서 전에 시에서 감정은 시적화자만 느낀다고 했는데 결국 벌레들의 여린 마음은 시적화자가 벌레에 대해 느끼는 여린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즉 감정이입 같은 거요...

= 완전 굿이다. 바로 그거다... 이제야 서당개가 되는구나...!!

==> 그리고 선생님...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13-14행도 그럼 결국은 그동안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두꺼운 내 귀에 부딪쳐 돌아간 소리에 미안하니까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도 맞죠 ? 왠지 모를

## 미안함 같은 것...?

= 너를 이제 서당개라 명한다....완전 오케이다...

= 그렇다... 소리의 통로에서 자기 소리를 들어달라고 매달렸던 그 작은 벌레들을 생각하니 참으로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그들의 울음을 여린 울음이라고 표현한 것이란다.... 아주 좋다...

[D]	브라운관이 뿔어낸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15-19행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20-21행
	바닥에 새카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 자 이제 15-19행을 보자꾸나.... tv 때문에 내 눈과 귀가 두꺼워졌다고 한다... 그리고 벌레소리들은 결국 돌아갔고.... 지금 여기도 특별한 것은 없다.... 일단 넘어가자구나....

= 20-21행도 그런 벌레들의 불쌍한 모습을 생각하고 있다. 많이 미안할 거 같다...너희들도 누군가가 너희들을 찾아왔는데 만나지 못하고 돌려보내보라....그들의 마음이 어떨 것이며 너희 마음은 어떨지...?

[E]	크게 밤공기 들이쉬니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 김기택,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

= 22-25행을 보니 어떠니 ?

==> **왠지 미안했지만 그들의 그 작은 소리를 이제는 듣게 되니 어두웠**

던 마음이 조금은 환해지고(소리를 시각화=이런 것은 몰라도 됨)  
하여튼 기분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 완전 오케이다. 완전 굿이다..... 이렇게 읽으면 된다.

= 자 이제 두 시를 정리해보자....

= (가)시의 대상은 ?

==> 아침입니다.

= 정서는 ?

==> 아침예찬이고, 아침에 대해 즐겁고 활기참을 느끼고 있습니다.

= 태도는 ?

==> 당연히 정서에 맞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 (나)시의 대상은 ?

==> 작은 풀벌레 소리입니다.

= 정서는 ?

==> 그동안 듣지 못했던 것에 대해 미안하고 그냥 돌아간 벌레들에 대해  
여러지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 태도는 ?

==> 당연히 정서와 일치하고요.... !!

자 이제 문제로 넘어가자 !!

43. (가), (나)의 '어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자 이제 문제를 보니 앞에 설명한 것들 또 나왔구나 !!

= 설명 문제는 결국 5명 나와서 한마디씩 하고 들어갈 것이니 너희들이 OX판단하는 문제라고 했다... 기억나지 ?

=> 넵 선생님... 한명씩 '어둠'에 대해 설명을 하니까 저희가 판단한 내용으로 OX 가리는 문제라고요....

= 오케이....이제 들어간다....

= (앞 칼럼에서 많이 설명했으니 참조하세요)

① (가)에서 '어둠'은 '물상'을 돌려주는 행위의 주체로 표현되고 있다.

= 사람처럼 표현되어 있다고 한 거 기억나지 ?....가도 되니 ? // 넵 !!!

② (나)에서 '어둠'은 '풀벌레 소리'를 도드라지게 하고 있다.

= 텔레비전 끄고 어둠과 함께라고 했고, 별빛도 묻어 낭랑하다고 했잖니.... 가도 되지 ?

③ (가)에서는 '어둠'이 사라져 가는 시간을, (나)에서는 '어둠'이 지속되는 시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 이거 그냥 가자꾸나...애들아...

④ (가)에서는 ‘어둠’이 물러나면서 상황이 변화하고, (나)에서는 ‘어둠’이 들어오면서 ‘방 안’의 분위기가 변화한다.

= 이것도 가자 !!.... 그러면 답이 거의 결정된 거 같다...!!

⑤ (가)에서는 ‘어둠’의 생산력을, (나)에서는 ‘어둠’의 포용력을 앞세워 ‘어둠’이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 (가)에서는 어둠의 생산력을 앞세운다. = 완전 오케이

= 그리고 어둠이 밝음에 순응한다.... == 더 완전 오케이

= (나)에서는 어둠의 포용력을 앞세운다. = 풀벌레 소리가 어둠과 함께 방에 들어옴 = 완전 오케이

= 그러나 밝음은 어디를 찾아도 보이지 않고 별빛만 보일 뿐이고 또 어둠이 밝음에 순응하는 태도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짜짜라짜 째... 답이다 !!!!!!!!!!!!!

44.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애들아 ‘이해’라는 문제는 독자 문제다. 출제자가 독자에게 직접 묻는 거다. 그러니 여기서 서정문학의 개념이 중요한 것이다. 보기 박스가 없어도 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물어보는 것이지...그래서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야 하고 제대로 배워야 하는 것이다. 사교육 종사자들도 정확하게 가르쳐야 한다. 깨알 같은 정리 프린트

나눠주고 나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프린트로 학생들 암기나 시키는 그런 교육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사라졌다. 비싼돈 주고 EBS 정리집 사는 애들은 그냥 비웃자...!! 20여 년간 나를 거쳐 간 고3 과 재수생들은 외우지 않아서 좋았고, 이해해서 적용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다. 국어는 절대로 외우거나 감으로 푸는 것이 아니다.

① '무거운 어깨를 털고'는

= 애들아 이제 '이해' 문제와 '감상' 문제 어떻게 푸는 지 알려줄게... 보기를 보니까... 이 부분은 본문에 있지?...항상 이해는 이렇게 ...이해할 부분을 알려준다...그래야 이해를 할 수 있거든... 모든 문제가 다 그러니 한번 대입해보렴.... 확인도 해보렴....

① '무거운 어깨를 털고'는 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물들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자 선지를 3등분 해보자.... 일단 /지상으로 벗어나기 위해/ 사물들이 몸부림 ~~/  
이 몸부림 ~~/

= 이 부분부터 설명하자면 아무리 봐도 (가)시에서 지상에서 공중으로 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무거운 것을 털 뿐인데 지상으로부터 벗어난다?...이것은 오버된 표현이다... 당연히 틀렸다... 그 뒤에는 볼 필요도 없다. 벌써 앞 부분이 틀렸는데....!!!

②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는

= 무슨 말인지 알겠지 ? 저 위에 1번을 보렴...

②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는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 사물들이 경쾌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 / 사물들이 경쾌하게 움직이는 모습~~  
= 이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것을 보면 아침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좋다는 얘기인데 그 어디에서 노동의 고단함이 나왔니 ?..... 그 다음 부분은 볼 필요도 없이 여기서 틀렸다. 이렇게 틀렸으니 더 봐야 돼 ? 가도 돼지 ?

③ '즐거운 지상의 잔치'는

= 갑니다. 여러분 !!

③ '즐거운 지상의 잔치'는 기존의 사물들이 새로 태어난 사물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기존 사물들이 새롭게 태어난 것을 반갑게 맞이한다.... 다행히 이것은 하나네... 두 개도 아니고....그런데 밤새 태어난 것에 대해 반가움을 표현하는 시니 ?.... 아니면 아침이 좋은 거니 ? 밤새 고생했다?... 태어나느라고....ㅋ

=> 아침이 좋은 것입니다. 아침 예찬이죠...!! ㅋㅋ

④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 간다

④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하늘의 태양이 지상에 있는 사물들과 서로 어울려 생기를 띠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이 글의 대상은 아침이란다. 시적화자가 즐겁게 울어야 하는데 지금 태양이 대신 울어주네... 이게 뭐였지 ?

==> 감정이입이요. !!

= 그래 생기는 원래 시적화자가 띠어야 하는데 지금 태양이 대신 띠었으니깐 간접적인 표현으로 정서를 드러냈구만.... 오케이 ?..... 답이 될 거 같은데 ?....맞니 ?

==> 네 맞습니다 !!!

⑤ ‘세상은 개혁을 한다’는 사물들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면서 혼란을 겪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읽으나 마나지만 ‘혼란’ 부분이 틀렸다...그렇지 ?

==> 네 그렇습니다. !!

45. (나)의 [A]~[E]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해’, ‘감상’, ‘반응’ 등의 문제는 모두 출제자가 독자에게 직접 묻는 문제이다. 그러니 본문내용 일부 나오고 그 일

부 내용에 대해 여러분의 감정(느낌)을 말하면 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결국 서정문학이 뭔지 알면 풀 수 있고, 문제 용어 몇 개 알면 모두 국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되는 것인데 ....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여러분의 진짜 능력을 망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이다. 자 들어가자 !!!

① [A]에서 화자는 ‘텔레비전’을 끈 후 평소 관심을 두지 못했던 ‘풀벌레 소리’를 지각하고 있어.

- = [A]에서 화자는 / 진짜 지문에 나오는 것이다. 그냥 지나간다.
- = ‘텔레비전’을 끈 후 / 진짜 지문에 나오는 것이다. 그냥 간다....
- = 평소 관심없던 풀벌레 소리 지각한다.... 당연한 거지 ?... 너희도 그렇게 느끼지 ?
- = 그렇게 느낀 거 맞으면 통과해..... 당연히 맞은 거니까....

② [B]에서 화자는 ‘큰 울음’뿐만 아니라 ‘들리지 않는 소리’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화자의 인식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 = [B]에서 화자는 ~~~ / 그냥 가자...
- = ‘큰 울음’ 뿐만 아니라 ‘들리지 않는 소리’도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됨 / 맞지 ?
- = 그것을 알았으니 당연히 화자의 인식 범위가 확장되는 거 맞아 틀려 ?
- => **당연히 맞습니다. 선생님 !!..... 가도 될 거 같은데요 !**

③ [C]에서 화자는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들이 화자 자신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고 있어.

= [C]에서 화자는 ~~~ / 그냥 가자...

=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들이 / 즉 내가 듣지 못했던 벌레 소리 들...맞지 ?

= 그런데 그 주체들이 화자 자신 때문에 서로 소통 불가능하게 되었다 ?....왜? 콘크리트로 벌레들을 덮었나 ? 어디에 소통 불가능하게 했다는 얘기가 있나 ?.... 미안함은 맞지만 소통할 수 없어서 미안한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해서 미안한 것인데..... 애들아 그렇지 ?

**==> 네 그렇습니다. 바로 답입니다. 선생님...!!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④ [D]에서 화자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그 울음소리들’을 떠올리며, 그 소리를 간과했던 삶을 성찰하고 있어.

=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니 ? 그래 바로 가자 !!

⑤ [E]에서 화자는 ‘그 소리들’을 귀로만 듣지 않고 내면 깊숙이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어.

= 시적화자는 별빛과 풀벌레 소리를 가슴으로 허파로 들이쉰다고 했다...그렇지 ?

= 가도 되니 ?

**==> 네 선생님....!!!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제 칼럼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늘 변함없이 어설피 2-3등급과 확실한 3-5등급을 위한 칼럼입니다. 확실한 1-2등급은 자신들의 약점을 빨리 찾아내면 그 다음은 국어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수능날까지 겸허히 공부하는 자세를 잊지 않는다면 그들의 1등급은 변함 없을 테니까요 !!! 하지만 덤벼대고 나대고 오만하고 거만한 자세는 분명 수능 날 그 결과치를 보여줄 것입니다. 겸허하게 공부하세요.... 국어공부는 이런 거야 !!! 라는 감성에 호소하는 말에 흔들려서 수개월 짜 공부 방법만 공부하는 친구들처럼 팔랑귀가 되지 마세요...

늘 현실적인 칼럼을 쓰려고 했고, 현장 수업을 어떻게 하면 리얼하게 옮겨올까 고민하면서 쓰지만 그래도 다 표현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칼럼입니다.

어느 전장의 노병처럼 이제는 늙아가는 강사지만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주는 강사로 남고 싶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강의 24년차 되는 오르비 국어 인강 강사 김현종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